

인기 처방 의약품 쏠림현상 “선명”

100대 처방약 보유기업 39사로 줄어 … Sanofi-Aventis 8개로 최다

과거 5년간 인기 처방약 가운데 항생제와 소화제 사용이 퇴조한 반면, 혈압약과 항혈전제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 약값 지출 상위 100개 의약품 가운데 혈압강하제가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제 7개, 항생제·항진균제와 항혈전제 각 6개, 당뇨병치료제 5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5년 전인 2002년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100대 처방약 가운데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항진균제가 16개로 가장 많아 의약품 사용 트렌드에 큰 변화를 드러냈다.

항생제·항진균제 다음으로는 혈압강하제 14개, 소화제 등 소화기관용 약물 11개, 항암제 6개, 당뇨병치료제 5개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염 치료 약물과 소화제 비중이 줄고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약물이 늘어난 셈이다.

불과 5년만에 100대 처방약 목록에서 항생제·항진균제 및 소화기계 약물이 대거 사라진 것은 감염성 질환이 급감했다기 보다는 정부가 항생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소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증상이 없는 심혈관계 만성질환을 조기부터 치료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고혈압약과 항혈전제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0대 처방약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2002년 48개에서 2007년 39개로 줄어 상위권으로 쏠림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2년 100대 처방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한독약품, Sanofi-Aventis Korea, 한국MSD로 각각 5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는 Sanofi-Aventis Korea 8개, 대웅제약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각 6개, SK케미칼과 한국Pfizer가 각 5건으로 상위권 제약기업들이 확보한 인기 의약품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서도 쏠림이 확인된다.

특히, 100대 처방약 가운데 외국계 제약기업 제품은 45건에서 53건으로 늘어났다.

Sanofi-Aventis Korea 50%의 지분을 보유한 한독약품을 외국계 제약기업으로 분류하면 외국계 제약기업 비중은 더 커지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 약값 가운데 급성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심혈관계 등 만성질환 약물과 고가 항암제는 늘었다”며 “항생제 사용 억제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소화제를 비롯한 보조제 건보 적용 제외 등 정책의 영향도 약물 사용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10>